

의안번호	제 29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07 회)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3월 2일

#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96
----------	-----

제안연월일 : 2012. 3. 2.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 주 문

- 정부는 2008년부터 ‘연구 중심형 국립암센터 분원의 설립’을 추진해 왔음
- 우리는 오송 분원 유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분원 유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러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해 왔음
- 정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4년여 동안 추진해온 분원설립의 백지화를 꾀하고 있음
- 정부가 정치논리에 치우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재추진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함

## □ 붙 임 : 결의안

□ 보낼곳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일동

##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는 158만 충청도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해 온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보건복지부의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넘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세계수준의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의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연구 중심형 국립암센터 분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충북은, 수도권에 집중된 암 전문 치료기관의 분산을 통해 지역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을 유인 하겠다는 대의(大義)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한 행보를 가져왔다.

또한, 우리는 오송 분원 유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분원 유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러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4년여 동안 추진해온 분원설립의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를 목인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외시 하려는 현 정부의 꿈수이며, 동시에 세종시 백지화, 충청권 과학벨트 공약 무효화 논란에 연이은 충청인 500만을 무시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정치논리에 치우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재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분원 후보지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무시한 채 분원설립 중지를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조속히 재추진 하라!**

우리는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가 철회되고 조속히 재추진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12년 3월 2 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동**